



아이디어 창출 및 발명의 발상기법

걱정만으로 되는 일은 없다

핀 지는 발명을 통해 엄청난 부자가 되거나 불멸의 명예를 얻은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다. 그런데 발명의 성공이 가져다 주는 행운이 이뿐만은 아닌가 보다. 때때로 발명은 사랑을 이어주는 역할도 하는 것 같다.

미국의 한 평범한 청년인 한트는 아주 심각한 고민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그 또래의 청년들이 흔히 하는 사랑의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남들과는 또 다른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아! 어떻게 열흘 안에 천달러를 벌 수 있담.’

한트는 깊은 한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헤스타라는 아가씨를 사랑하여 그녀와 결혼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들의 사랑은 곧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다. 헤스타의 아버지가 어려운 조건을 내걸며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트는 가진 것이 너무 없어. 헤스타를 고생시킬 것이 뻔해. 하지만 기회는 한 번 쥐보겠다. 열흘 안에 천달러를 벌어와라. 그러면 너희들의 결혼을 승낙하겠다.”

헤스타 아버지의 이 말은 사실 결혼을 반대한다는 말이나 다름없었다. 실제로 열흘 안에 천달러라는 거금을 번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걱정만 하고 있어선 아무 것도 안되지... 무엇이든지간에 해보아겠다.’

그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때 그의 눈에 부활절에 리본을 달 때 쓰이는 핀이 언뜻 띄었다.

“맛아! 지금 쓰이는 바늘핀은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아 리본이 자꾸 떨어지거든... 저것을 고쳐보아겠다.”

그는 한 움큼의 철사와 공구를 가지고 다락방에 들어박혔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그는 그럴 듯한 모양의 핀을 완성해내었다. 바로 안전핀의 탄생이었



다. 그는 그것을 들고 온 시내의 리본점을 뛰어다녔다. 그리고 그날 저녁 무렵 한트는 보무도 당당하게 헤스타의 집으로 쳐들어갔다.

“장인어른, 헤스타를 제게 주십시오. 약속대로 천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찌렁찌렁 울려 퍼졌다.

개척정신으로 살라

미국의 감자왕 심푸룻트. 그의 일생은 감자로 시작해서 감자로 끝난 그야말로 감자 인생이다. 그는 평범한 감자 농부에서 출발하여 마침내는 미국의 대 사업가로 성장하였다. 이것은 그의 인생을 통털어 그를 지배했던 독창적 아이디어와 개척정신 덕분에 있을 수 있었던 일이다.

심푸룻트가 감자 재배를 시작한 것은 그가 15세가 되던 해부터였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4에이커의 감자밭을 빌려 감자재배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몇마리의 돼지를 사서 동시에 기르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매일 감자밭과 돼지우리 사이를 오가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다.

‘감자와 돼지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법은 없을까?’

그는 오랜 궁리 끝에 말고기와 감자 껍데기를 혼합하여 돼지의 사료를 만들어냈다. 이 사료 덕분에 돼지들은 무럭무럭 자라났고 심푸룻트의 농장도 점점 커 나갔다.

그러나 심푸룻트의 야망은 끝이 없었다. 그는 날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며 꿈을 키워 나갔다.

“감자 껍데기를 돼지 사료로 쓸 수 있는데, 소 사

료로 쓸 수는 없을까?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는 오랜 노력 끝에 보리에 감자 껍데기를 섞어 소의 사료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것을 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이후에도 심푸룻트는 계속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엔 감자로 무엇을 할까?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는 계속 자신에게 묻고 대답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건조감자, 건조 양파의 사업에까지 손을 뻗어 나갔다.

이렇게 하여 그는 전 미국의 감자 시장을 석권하였고 감자 재벌로 불리우게 되었다.

주어진 여건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심푸룻트의 정신,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발탁 9908

